

■ 2023년도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2일(금요일) 10: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희, 송영훈, 신보슬, 전강희, 정진세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 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장르 예술이라는 말에서는 역사를,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라는 말에서는 미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신청작 중에서도 역사성과 미래성이 교차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다원예술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흥미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법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존 장르의 외연을 넓히거나 전복시키는 작업이 눈에 띄었고, 주제 면에서는 정체성·주체성·당사자성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작업 주체나 대상을 교란하고 재맥락화하는 시도, 2000년대 이후 생겨난 사회적 징후를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 기성세대가 중시하는 관념적이고 실재적인 가치들을 무용화하는 인식을 보이는 작업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비록 서면과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였지만, 용감하고 유의미한 작업을 지향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차 서류심의는 총 154건이 진행되었고, 2차 온라인 인터뷰 심의는 2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의는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작품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 역량을 기준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였고, 2차 심의는 1차 심의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선한 주제로 접근했을지라도 워크숍, 리서치, 아카이빙, 아이디어 제시 등 작업의 사전 지원 단계에 적합해 보이는 작업보다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최종 발표물에 집중한 작업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발표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기획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거나 이미 여러 번의 발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원예술을 예술과 기술 협업 정도로만 이해하는 작업도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신청사업 중에서는 주제 면에서 포스트 휴먼, 비인간, 기후 위기 등 동시대 담론을 다루는 창작자들이 다수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개념들이 아직 소화되지 않고 추상적인 언어와 논리로만 모호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일지라도 깊은 성찰과 고유한 방법론이 정확하게 제시된 작업에 집

중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2차 심의 이후,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품의 참신성과 예술적 기여도, 계획의 구체성과 비용의 적절성 등을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예술가의 기획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 예산을 온전히 보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 작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신청 예산에 다소 조정이 있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3년도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보내주신 예술가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바탕으로 다원예술이 동시대 예술의 최전선을 그어 나아가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